

# 중국 연변 농촌지역의 조선족인구 감소와 지역성 변화\*

- 두만강변 조선족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

呂 弼 順\*\*

## The Decrease of Korean Population and the Change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in Rural Area of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LU, Bi Shun\*\*

**요약** : 본 연구는 경제개혁 이후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내 조선족 인구감소의 메카니즘과 그 결과가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호적제도의 약화 및 한·중 국교수립 이후 이동성향이 높아지고 통혼권과 거주지역이 확산되면서 조선족사회는 출산력수준의 급격한 저하와 젊은 층 및 여성 위주의 인구가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곧바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져, 농업의 쇠퇴와 농촌지역의 조선족사회집단 해체, 기능약화, 민족교육의 위축 및 지도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감소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농업경영상의 변화는 타지역 한족(漢族)농민들로 충당되었고 농업의 한족화 현상과 조선족에 비해 한족 농민들의 경제력 상승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작물구성의 변화는 전통적 수전농업 체계에서 한전(旱田) 단작영농체계로 특화되어 가는 경향이고, 노동력 효율적 분배가 가능한 상업적 작물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선족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농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는 결국 조선족농촌마을이 소실될 위기에 놓여 있어 파격적인 정책지원 및 농촌개발정책의 수립이 중요하다.

**주요어** : 연변지역, 농촌지역, 조선족, 인구감소, 지역성변화

**Abstract** : This study illustrates the mechanism of The Decrease of Korean population in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YBKAP) and some change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since China's economic reforming. Due to China's Implementing market economic system, deregulating in family register system, higher mobility since establishing Sino-Korean diplomatic relations, the expansion of intermarriages and residential areas, Korean community is confronted with lower birthrate and continuous mobility of the young and women. It directly connects to a decrease in urban population and aging, causing a decline in farming production, disintegrating of Korean community, weakening the function of villagers' organization, shrinking in Korean education and leaderships. For supplementing the shorted labor, Chinese farmers from other areas flow into the YBKAP, showing some different trends, such as farming Chinesization, Chinese farmers' higher economic level than Korean, the Korean traditional paddy field transforming into dry farmland with single-crop farming and pursuing commercial production in labor management. At the moment, declining population in Korean community in rural areas means that the community could not respond the changes of farming environments appropriately and in some way it is facing with the crisis of die away from the Chinese society. It needs an unconventional support and development policies in YBKAP rural areas.

**Key Words** : YBKAP, rural area, Korean minority, decrease in population, Change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 1. 서론

세계화의 급진과 더불어 초국가적 이주가 활발해지고 이는 최근 여러 학문분야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연구 주제이다. 중국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한·중 국교수립 이후 조선족사회는 출산력 수준의 급격한 저하와 젊은 층 및 여성 위주의 인

구가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중국 내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연변조선족자치주(이하 연변 지역으로 기재)도 지난 20년 동안 인구감소를 경험하였다. 이는 곧바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져, 농업의 쇠퇴와 조선족 집거지인 농촌지역의 조선족사회집단 해체 및 기능 약화, 농촌지역의 지도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NRF-2011-330-B00118); 2012년 吉林省教育科學“十二五”規劃項目(Z C12008; GH11043)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중국 연변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t. of Geography, Yanbian National University)(bslv@ybu.edu.cn)

산업화 과정에서 조선족의 인구행태와 인구구조의 이러한 변화는 한족을 비롯한 기타 민족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것은 경제개방 이후 시장의 논리와 호적제도의 약화에 따라 이동성향이 높아지고 통혼권과 거주지역이 확산되면서, 초기에는 동북 3성 지역의 선양(瀋陽), 창춘(長春), 하얼빈(哈爾濱), 다롄(大連) 등의 대도시로 이주하던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는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등 특대도시와 옌타이(煙台), 칭다우(靑島), 웨이하이(威海) 등 발해만 지역의 도시 및 항저우(杭州), 난징(南京), 푸저우(福州), 샤먼(廈門), 산터우(汕頭), 선전(深圳), 광저우(廣州) 등 동남부 연해지역 대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조선족의 인구이동은 한국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국내 다른 농촌지역의 이촌향도 또는 ‘民工潮’<sup>1)</sup>를 통한 이주와 다른 점이다. 연변지역 조선족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호적제도<sup>2)</sup>의 약화이지만 한국이라는 요인이 조선족 인구감소를 더욱 가속화시켰다는 것이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현재까지 중국 내 대도시에 40만 명에 이르는 조선족이 한국기업 및 한국인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고(길림신문, 2011), 그리고 2007년부터 재외동포정책의 일환인 방문취업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2011년 현재 28만 여명이 국경을 넘어 한국에 취업 중이며, 또한 6만3천 여명 규모의 조선족 여성이 결혼이주를 통해 한국에 정착하여 국제적인 이동이라는 점도 특색이 있다(행정안전부, 2011). 그 외, 일본과 미국·러시아 등 국가에 진출한 출국인원 15~20만을 합치면 국외에 진출한 조선족은 60만에 달한다.<sup>3)</sup>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학자들은 때로는 “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인구감소로 인하여 위축과 퇴락해지는 조선족 농촌지역사회를 인식하기도 한다(유병호, 2000; 박금해, 2000; 김재기, 2002; 이길남, 2010). 물론 국토의 주변 지역에 정착하여 주로 농업에 종사 하면서 생활하던 조선족이 세계화의 붐을 타고 초국적 인구이동 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농민집단이 초국적인 시민집단으로 변신해 가는 세계화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발전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세기 반 동안 민족공동체의 토대역할을 감

당하여 온 조선족 농촌사회의 급속한 지역성 변화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지역의 기초조건이 흔들려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생산기능이 저하로, 기존의 조선족 농촌경제 패턴이 파괴되어 전통적 집거구(集居區)가 소실되는 이와 같은 불이익의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지역의 조선족인구의 절대적 감소라는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주요 내용인 이촌향도형과 초국가적이주형 인구이동에 대해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조선족인구이동의 특성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는 인구학, 민족학, 사회학 쪽에서 2000년 초반부터 먼저 시작되어, 인구이출의 인구학적(李春敏·薛宝生, 2000; 梁玉今·蔡洙一, 2003; 金強一, 2004; 王鑫, 2009; 朴美兰, 2010; 김두섭, 2013), 사회학적 특성(김재기, 2002; 권태환, 2004; 2005; 鄭信哲, 2006; 박광성, 2007; 김병호·류준옥, 2007)은 어느 정도 상당히 밝혀졌다고 본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리적 변화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인구감소를 실질히 체험하고 있는 조선족 마을에 대한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선족농촌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하여 학문적 논의의 성과가 실질적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연구 주제의 발굴과 실천적 방안 제시가 요구된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1978년 말 경제개혁 이후 연변지역 내 조선족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지역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중국 연변 농촌지역의 조선족 인구감소에 초점을 두고, 두만강 상류에 위치한 조선족마을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첫째, 조선족 인구감소의 원인과 인구이동의 주요 흐름 및 현 단계 인구의 특성을 밝히고, 둘째,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의 적응양상을 농업경영방식과 관련지어 사례연구를 통하여 고찰하고, 셋째, 인구감소와 더불어 나타난 지역의 내·외적인 구조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여 전체적으로 연변 조선족농촌지역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우선 인구통계자료에 의거하여 1990~2010년간의 변화를 토대로 조선족인구가 급감하는 추세가 가장 뚜렷할 뿐더러 연변지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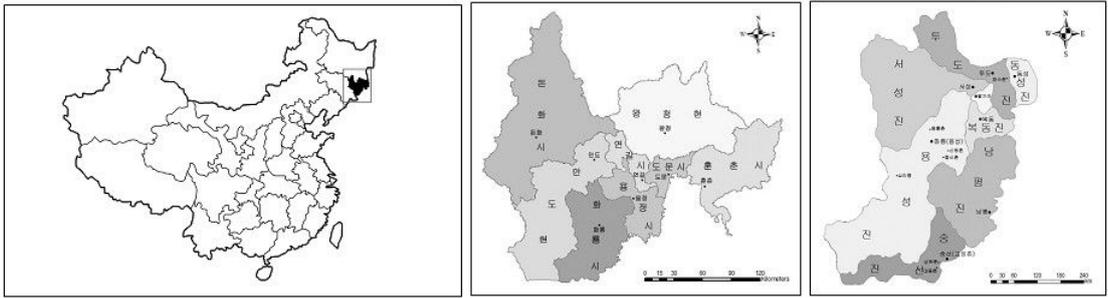


그림 1. 중국에서 연변지역의 위치, 연변지역 및 和龍市 행정구역

서 가장 전형적인 조선족 집거지역인 두만강 상류에 위치한 허룽시(和龍市) 충산진(崇善鎮)을 표본 지역으로 선정하였다(그림 1). 조사시점은 2010년 5월부터 7월 사이, 2011년 10월, 2012년 6월 3차에 걸쳐 송선진의 각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주요 책임자들과의 면접 및 증언청취 결과를 종합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인구급감 조선족 마을의 면모와 진상을 파악하였고 분석방법은 평균분석을 사용하였다.

## 2. 조선족 인구의 감소: 연변지역과 和龍市 崇善鎮의 추이

인구현상은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 제반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며, 해당 지역의 동향을 반영하고, 동시에 지역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오므로 인구현상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현상의 하나가 된다.

중국은 1949년 현 정부가 수립된 이후 2010년까지 여섯 번의 인구센서스가 이루어졌다. 1953년의 첫 번째 인구센서스에 의한 중국인구는 5.9억 명으로 집계되었던 것이 2010년 현재 13.4억 명을 넘어서 지난 57년간 2.3배 증가하였다(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11.4.28). 조선족 인구수는 같은 기간 동안 112.1만 명에서 183.9만 명으로 64.1%가 증가하였지만 1953년에 0.19%이었던 전체인구에 대한 조선족 인구의 구성비율은 2000년 0.155%, 2010년 현재 0.137%로 떨어졌다(延邊朝鮮族自治州人口普查辦公室, 2013). 일반적으로 인구증감 법칙에 의하면 인구성장은 증가율 감소에서 절대 감

소로 가려면 30~50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조선족인구는 1994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절대 감소가 확정되기까지 단 16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내 56개 민족가운데서 인구절대 감소민족으로는 조선족밖에 없다. 조선족 인구성장의 정체현상은 이미 1980년대 말부터 보이고 있다.<sup>4)</sup>

1990년 이전까지 중국 조선족사회의 기본 특징은 중국사회 특유의 도·농이원화 구조로 인한 거주의 지역적 안정성이다. 이 시기 농민들의 도시 진출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개별적인 근무 지조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었다. 따라서 1980년대 말까지 조선족의 인구이동은 제한적이었으며, 지역적 안정성이라는 기존의 구조가 유지되었다.

1990년 4차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97.3%가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라오닝성(遼寧省) 및 내이명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등 동북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중 43.4%가 吉林省 동남부에 위치하여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연변지역에 집거하고 있다(延邊朝鮮族自治州人口普查辦公室, 1992). 그러나 대외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1992년의 한·중 수교로 양국의 교류가 급속히 증가되면서, 조선족사회의 지역적 안정성은 활발한 초국가적 이주와 국내이동으로 급격한 변동을 시작하였다.

연변지역 조선족 인구수는 1949~1995년까지 46년간 연평균 2.1% 속도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6년을 기점으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의 절대적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延邊統計年鑒, 2011). 한편 1953년부터 2010년까지 여섯 번에 걸쳐 진행된 인구센서스에

표 1. 연변지역과 和龍市 조선족인구의 변천(1949~2010)

(단위: 명, %)

인구 센서스	연도 (월.일)	연변지역 총인구	和龍市 총인구	연변지역 조선족인구 (A)	和龍市 조선족인구 (B)	연변지역 조선족비율	和龍市 조선족비율	B/A
1차	1953(7.1)	926,207	135,163	557,292	111,124	60.17	82.21	23.3
2차	1964(7.1)	1,294,629	181,716	623,136	121,430	48.13	66.82	19.49
3차	1982(7.1)	1,871,512	241,152	754,567	145,340	40.32	60.3	19.26
4차	1990(7.1)	2,079,902	242,417	821,479	144,205	39.5	59.49	17.55
5차	2000(11.1)	2,209,646	223,819	801,210	123,510	36.26	55.18	15.42
6차	2010(11.1)	2,270,816	189,532	736,991	89,552	32.46	47.25	12.15

자료: 延邊朝鮮族自治州人口普查辦公室(第四~六次人口普查資料); 延邊統計年鑒 2011; 和龍市統計年鑒 2011

서 집계된 연변지역 총인구수에서 차지하는 조선족의 구성비율은 1953년의 60.17%에서 2010년의 32.46%로 뚜렷한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표 1). 연변지역의 8개 시·현에서 조선족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和龍市의 조선족 인구비율은 같은 기간 82.21%(111,124명)에서 47.25%(89,552명)로 감소폭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和龍市統計局, 2011). 반면에 연변지역의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49년의 835,278명에서 2010년 현재의 2,270,816명에 이르렀다.<sup>5)</sup>

〈표 1〉에 의하여 2000~2010년 기간의 연변지역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28%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중국 전체인구의 연평균증가율 0.57%의 절반 수준이다.<sup>6)</sup> 연변지역의 총인구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은 조선족이 한족보다 인구의 증가속도가 두드러지게 더디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감소 추세라면 연변지역 조선족 인구비율은 2020년에는 30%, 2050년에는 25%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sup>7)</sup>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의 인구성장 속도의 빠른 감소와 1996년부터의 마이너스 성장 현상의 원인은 우선, 중국 정부의 계획생육정책의 실행 및 시장 경제와 더불어 나타난 타민족에 비하여 문화교육 수준이 높은 조선족 여성의 생육관념의 변화, 육아 부담의 증가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동반하여 나타난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있고, 다음, 주로 농촌공동체 생산·생활방식의 파괴로부터 비롯된 이촌향도의 큰 흐름에 기인되며, 세번째는 조선족 이동이 주로 노동이동과 혼인이동임을 감안할때 조선족농촌지역의

남녀성별비율 균형의 상실로 기계적인 감소가 무엇보다 조선족의 인구증감법칙이 심하게 파괴된 주된 원인임을 나타낸다.<sup>8)</sup> 특히 출생수준의 빠른 저하는 조선족인구감소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변지역의 경우를 보면 총출산율이 지난 20세기 40~50년대에는 5.18~5.90이고, 중국 정부에서 가족계획(計劃生育)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인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4.42이던 것이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2.51로 낮아지다가 1981년부터는 재생산수준 이하인 1.91로 떨어졌고, 1999년부터는 급기야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수준인 1.1로 떨어졌다(朴美蘭, 2012).

이러한 인구증가율 감소와 전체인구 감소에 위기의식을 느낀 지방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출산·육아 지원책을 담은 ‘조선족인구발전조례안’을 인민대표대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고, 2013년 1월 1일부터 두자녀를 낳는 조선족가족에 대해서는 5萬元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해주시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 3. 사례연구지역의 인구감소 특성

조사대상지역인 충산진(崇善鎮)은 허룽시(和龍市)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다둥(大洞), 상텡(上天), 주린(竹林), 구청리(古城里)등 4개 행정촌으로 구성되었으며 면적은 616.18km<sup>2</sup>, 호적등록 인구는 3,341명, 인구밀도가 약 6/km<sup>2</sup>인 연변지역에서도 밀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데, 그중 조선족이 60.9%를 차지하고 있다. 경작지면적 1,111ha 중

표 2. 崇善鎮 인구의 주요지표 변화

(단위: 명, %)

연도	가구수	총인구	가구당 인구수	남자	여자	한족	조선족	조선족 비율	조선족인구 감소율
1975	971	5,402	5.6	2,485	2,917	583	4,819	89.2	-
1980	872	4,362	5.0	2,192	2,170	685	3,677	84.3	-5.4
1985	1,020	4,171	4.1	2,108	2,063	747	3,424	82.1	-1.4
1990	1,150	3,857	3.4	1,602	1,771	841	3,016	78.2	-2.5
2000	1,021	2,996	2.9	1,493	1,503	783	2,213	75.8	-6.1
2005*	1,386	3,604	2.6	1,827	1,777	966	2,638	73.2	3.5
2010	1,417	3,341	2.4	1,701	1,640	1,187	2,154	64.5	-4.0

자료: 百年和龍(1910~2010); 和龍市志(1988~2010); 延邊統計年鑑(2011); 延邊人口統計資料匯編(1990)

\* 2005년 崇善鎮의 가구수, 인구수 및 조선족인구 감소율이 2000년에 비하여 증가된 원인은 2004년말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인근 南坪鎮 관할구역에 있던 竹林村(6개 마을)이 崇善鎮으로 합병되었기 때문이다.

301ha가 논이고 나머지 810ha는 밭이다. 재배하는 작물로는 벼, 옥수수, 콩, 잎담배, 고추, 해바라기, 인삼 등이 있다. 두만강을 사이 두고 북한의 양강도 대흥단군 삼장리와 마주하고 있는 崇善鎮에는 국가급 통상무역구인 古城里 통상구가 있어 북한으로부터 연간 5만<sup>3</sup>의 목재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和龍市 임업국의 1년 생산량에 해당된다. <표 2>는 사례지역의 가구, 인구, 가구당 인구수, 조선족 인구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사례지역 崇善鎮의 조선족인구변화 추이를 우선 和龍市 통계연감에 제시된 수치에 의하여 살펴보면(표 2), 총가구수와 한족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총인구와 조선족인구, 조선족 인구비율 및 가구당 인구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조선족 인구는 2004년말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2000년보다 425명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0년 현재 1975년에 비해 57.8% 감소하였다. 특히, 이는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조선족 비율이 1975년의 89.2%에서 2010년 현재의 64.5%로 떨어진 점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가구당 인구수는 1975년의 5.6인에서 2010년 현재 2.5인으로 55.4%의 감소율을 나타내어 전국 평균 3.1인(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11.4.28)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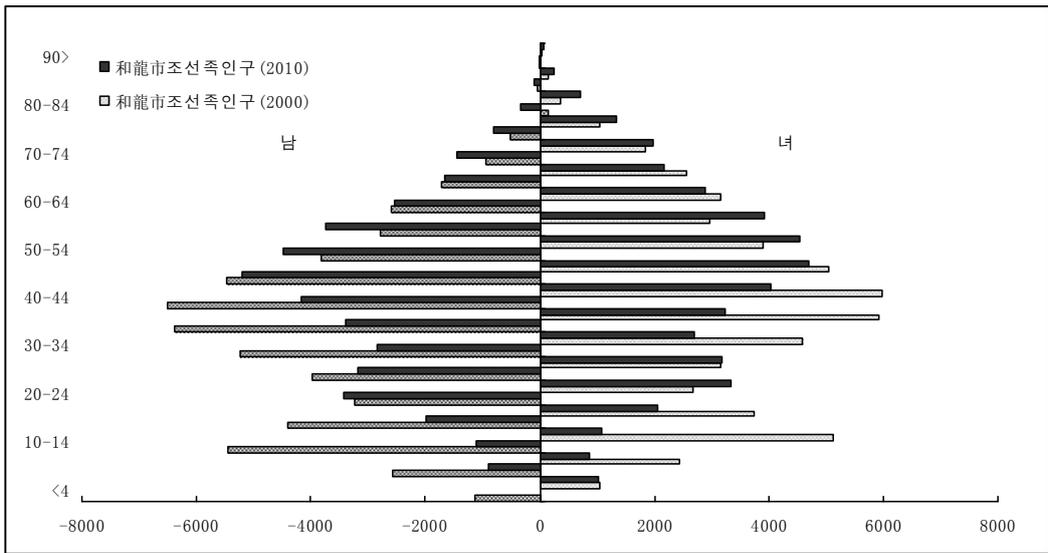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지역 간 자유로운 인구가동을 통제하는 특유의 호구제도의 실시로 지역 간에 거주지를 옮기는 일이 공식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 연변지역의 조선족 농촌인구는 정부의 허가가 없이는 대도시로 이주 하더라도 호적상에는 변동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실제 조선족의 이동상황은 공식적으로 파악하는 정부의 이동통계와는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때 현지조사에서도 나타나

표 3. 崇善鎮 1990, 2000, 2010年 연령별 조선족 농가인구 변화

(단위: 명; %)

	1990		2000		2010	
	농가인구	비율	농가인구	비율	농가인구	비율
<14세	1,068	35.4	553	25	347	16.1
14~19세	265	8.8	177	8	123	5.7
20~39세	863	28.6	660	29.8	702	32.6
40~59세	642	21.3	593	26.8	620	28.8
≥60세	178	5.9	230	10.4	362	16.8
계	3,016	100	2,213	100	2,154	100

자료: 和龍市人口和計劃生育局, 1949~2010인구통계 내부자료.



자료: 延邊人口普查辦公室(2002: 364-367); 和龍市人口和計劃生育局, 2010인구통계 내부자료.

그림 2. 和龍市 조선족 인구의 성 및 연령구조, 2000~2010

듯이 2010년 호적등록 조선족인구는 2,154명이지만 실제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439명에 불과하였다(崇善鎮 金光烈 鎮長님과과의 면담내용, 2011.9.26).

한편, 崇善鎮 1990~2010년 사이 호적통계상 조선족 농가구 및 농가인구 모두 28.6 %가 감소하였고, 평균출생 자녀수는 1990년의 1.84명에서 2010년에는 0.6명에 불과하여 한족의 그것에(1.08명) 비해 뚜렷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崇善鎮의 부녀 회장님과과의 면담내용).

<표 3>은 지난 20년간, 연령별 조선농가인구의 구성 변화를 나타낸것이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지난 20년간 14세 미만의 인구는 3배정도 감소한 반면에 60세 이상의 노년 인구는 오히려 같은 시기 2.8배 증가되어 고령화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

될 것임을 알 수 있다.<sup>9)</sup> 조사대상 지역에서 활동적인 청장년계층에 집중적으로 이출되었음을 반증한다.

이는 우선1970년대 초부터 실행한 정부의 계획 생육 정책으로 말미암아 출산저하로 이어졌기 때문이고, 다음은 역외 인구이동이 주로는 생산연령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이동의 결과이며, 그리고 인구재생산력의 급격한 감소는 농촌노동력의 고령화를 촉진한데 원인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和龍市 전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대규모 국제혼인 이동으로 인하여 혼인적령 인구의 남녀균형이 10년간 더욱 심각하게 왜곡된 반면, 60세 이상의 노년 인구층의 성비는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농업노동력의 고령화와 노부녀화가 진행되고 있음

표 4. 가족중 이출자가 있는 가구수

( )속은 %

	이출자가 있는 가구수						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부분이출	45(24.32)	87(47.03)	32(17.31)	7(3.78)	2(1.08)		173(93.52)
거가이출			2(1.08)	2(1.08)	7(3.78)	1(0.54)	12(6.48)
	45(24.32)	87(47.03)	34(18.39)	9(4.86)	9(4.86)	1(0.54)	185(100)

자료: 현지조사에 의함

주: 188 조사대상 가구 중 이출자가 없는 가구수는 3가구이다.

을 알 수 있다.

〈표 4〉는 조사대상지역 崇善鎮 조선족 인구가 출의 행태적 특성을 나타낸 것인데, 188 조사대상 가구 중 지체장애자 3가구를 제외한 98.4%의 가구들 가족중에 해외지역 또는 중국의 발달한 연해지역의 대도시로 이출하여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구성원을 평균 약 2.2명씩 포함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조사대상지역내 인구가 출은 단독이출과 거가이출로 구분하여 나타나고 있다. 인구이출은 청장년층의 해외노무 및 국내취업, 승진, 유학이거나 혼인이동 등으로 살고 있던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정착하여 마을에 있는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가지게 되며 부분이출이 나타난다. 그후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농촌에 남아있던 가족도 차츰 도시로 정착한 인구에 의존하게 되어 거가이출이 나타난다. 〈표 4〉에서 나타나듯이 부분이출 가구수는 173가구로서 총이출가구수의 93.52%로 높게 나타났고 거가이출은 6.48%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연구지역에서도 농촌인구이동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가이출이건 단독이출이건 농촌지역의 가족수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인구이동은 미래의 지역인구의 성격을 추정해 볼수 있는 실마리가 될수 있다.

다음, 조선족인구 이동의 공간적 유형 특성을 살펴보면 국제이동(55.4%)이 국내이동(44.6%)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국 내륙지역의 농촌인구 이동의 86.6%가 국내이동이라는 보편현상과는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국제이동의 경우 한국으로 이동하는 조선족 인구는 전체 국제이동의 75.18%를 차지하여 조선족 인구 이동의 선호 목적지가 한국임을 알 수 있고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조선족 농촌인구의 이출은 한국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 재확인가능하다.<sup>10)</sup> 다음으로는 일본이 13.1%를 나타내고 미국 4.9%, 러시아 1.0%, 캐나다 독일 0.5%, 사이판 1.0%, 기타국가 3.8%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3).

일반적으로 국내이동인 경우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에서 도시로 인접한 농촌으로, 도시에서 인접한 농촌에서 도시로, 그리고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구지역을 포함한 조선족이 보이는 높은 이동성

향은 무엇보다도 한국과의 관련성 속에서 조망될 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국내이동의 경우 외지로의 이동(75.0%)이 연변지역 내로의 이동(25.0%)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국내이동에 있어서도 외향형 특성을 나타낸다(그림 3). 구체적으로 靑島로의 이동이 17.7%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上海 11.4%, 大連 6.25%, 廣州 3.64%, 浙江 7.27%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연해지역 도시로 한국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것을 감안할때 조선족의 국내이동도 한국과의 관련성 속에서 동반이동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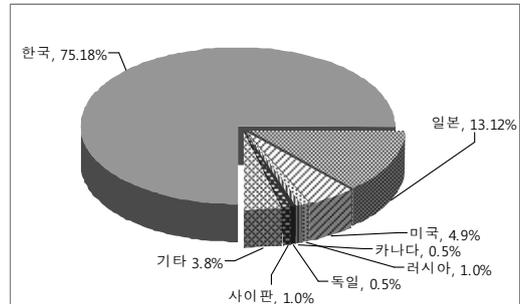


그림 3. 인구이동 목적지 선호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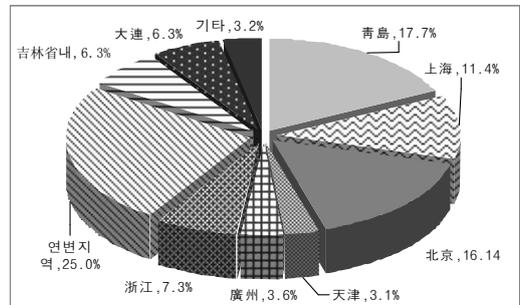


그림 4. 국내인구이동 목적지 선호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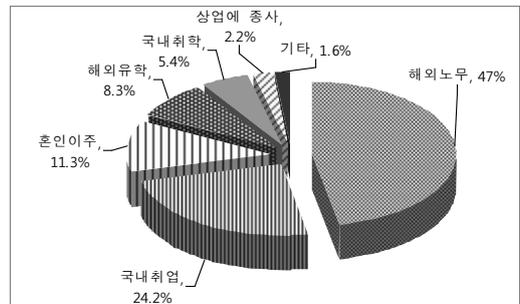


그림 5. 이동요인

다(그림 4).

조선족의 이러한 이동성향은 이동요인 분석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는데(그림 5) 한국을 목적으로 한 해외노무가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을 목적으로 한 국내취업이 24.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외 혼인이주(11.3%), 해외유학(8.3%), 국내취학(5.4%)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인구감소에 따른 조선족 농촌지역의 변화

농촌인구가 이출함으로 해서 그것이 농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농촌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가라는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는 점이 기존의 농촌인구 이출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가지는 중요한 약점중의 하나라는 지적이 있듯이 지난 35년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 전역에서 이촌향도형의 탈농촌 도시화 현상은 일반적으로 목격되는 주요한 변화 양상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이출에 따른 농촌지역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된 성과도 상대적으로 적고 또 농촌의 성격에 따라 그 변화상도 다양하므로 하나의 정설로 결론 내리기는 힘들다.

연변지역의 경우, 조선족 농촌지역의 인구이출에 의한 인구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외 모든 연구가 일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으나 조선족 농촌지역의 변화만을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여기서는 특별히 지난 20년간 조선족 농촌지역의 인구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져 농촌지역 성격의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농업경영의 변화, 생활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 1) 농업경영의 변화

농업경영의 변화 요인은 농업의 여러가지 변화에 기인하겠지만, 주로 조선족 인구의 선택적 이동에 따른 노동력의 성격 변화 즉 경영주체의 성격변화와 관련지어 농업경영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 지를 주로 사례연구를 통하여 그 실태를 고찰한다.

현단계에서 연변지역 농업경영의 특성은 부부

중심의 소생산자적 영농방식, 즉 영세농 경제중심이다. 이러한 특성은 경영주체, 토지소유 및 이용, 그리고 농업과 타업종간의 결합관계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 (1) 인구학적 변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변지역 조선족 농촌인구의 선택적 이출의 결과로 야기된 인구구성의 불균형의 심화는 농촌지역 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것은 바로 농업노동력의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1차적으로 종래 영농을 담당하던 젊은 여성인구를 포함한 청년층의 선별적 이출은 결국 농업 노동력 구성에 있어서 노년층의 영농 참여 비율을 높지게 되었고, 2차적으로는 조선족농촌지역에 있어서의 감소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주된 대안으로 타지역에서 전입한 한족(漢族) 농민들로 충당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족 노동력의 양적 축소와 함께 질적 변화를 초래하며 따라서 전반적인 영농방식과 농업적 토지이용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례지역 崇善鎮에서 2010년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조사대상 총 439가구중 188가구(42.8%)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그림 6), 전출한 조선족 농민들의 토지(農家責任田)를 타지역 한족 농민들에 의한 임대를 통한 개인임대차 경작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개별농가의 기계화(33.3%)이며 겸업화(18.7%)가 세 번째로 나타났으며, 고향에 남아 있는 조선족농민에 의한 임대차 경작은 겨우 5.2%에 불과하였다.

청장년층 농촌노동력이 해외로 또는 발달한 연해지역으로 나가 경제적인 부를 쌓은 후 다시 고향으로 귀향하여 농촌 개혁과 다종 경영에 종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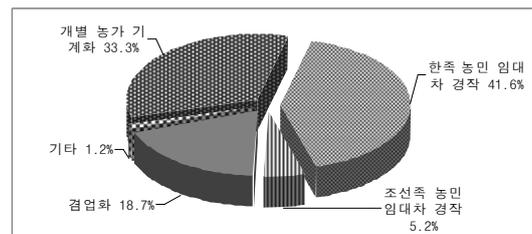


그림 6. 감소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주된 대안

므로서 농촌노동력의 양성순환을 형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작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현실은 발달한 연해지역 또는 한국에 비해 낙후한 조선족 농촌지역경계로 인하여, 한번 진출한 인구는 농촌으로 귀향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 뿐더러 설문조사 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기회만 있다면 미련없이 땅을 버리고 해외 노무 행을 택하겠다는 조선족 농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과 조선족인구 비율이 지속적인 감소를 초래하고 있을 뿐더러 한족농민들이 농업생산 규모를 확대하면서 농업의 한족화 현상과 한족 농민들의 경제력이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과격적인 정책의 지원이 없는 한 조선족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 조선족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새로운 농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결국 조선족농촌마을의 소실이 초래되었다(표 5).

(2) 작물구성의 변화

〈그림 7〉에서 나타나듯이 타지역에서 崇善鎮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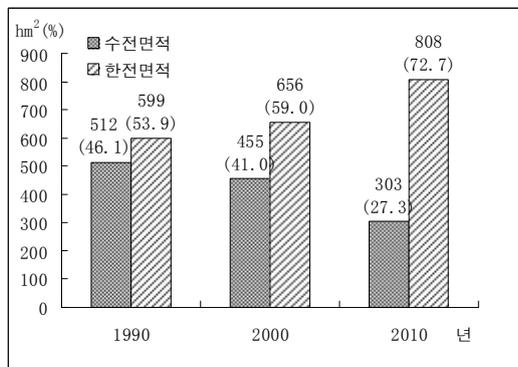


그림 7. 수전과 한전의 구성변화

로 이주해온 한족농민들이 조선족농민의 토자를 개인임대차 경작을 통한 규모농업의 확산으로 지역의 작물구성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우선, 1990년까지만 해도 水田(46.1%)과 旱田(53.9%)을 겸작하던 조선족농가의 고유한 생산활동 특징으로 낙인되었던 전통적영농체계에서 점차 벼농사를 포기하고 대신 旱田 단작영농체계로 특화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2010년 현재 水田은 27.3%, 旱田은 72.7%로 나타났다. 다음,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채소, 과수, 五味子 등 경제작물 및 특용작물의 재배가 거의 일어나지 않던 것이 2010년에 이르러서는 노동력이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한 상업적 작물이 인기가 높아 조사농가 188가구 중에서 56.8%(131가구)에 달하는 농가들이 담배, 해바라기, 호박, 고추 등을 재배하고 있는 현상이 눈에 띈다.

2) 생활환경, 사회문화적 변화

인구이출에 따른 조선족 농촌지역의 부정적 방향으로의 변화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생활환경의 악화 및 사회문화적 변화이다. 이는 생활환경의 열악성이 인구이출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오홍철, 1980a) 이출의 결과 환경이 더욱 악화되면 이것이 또 다른 이출의 원인을 제공하여 농촌은 건잡을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이재덕, 1989).

(1) 조선족 마을 경관의 변화

2006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새마을 건설의 일환으로 건설된 시범촌(示範村)을 제외한(사진 1), 대부분 농촌 마을은 폐가(廢家)가 많았고(사진 2),



사진 1. 새마을 건설-시범촌



사진 2. 폐가



사진 3. 한족 농가

노인들이 대부분이며 가옥의 건축연대가 오래되어 적막하고 노후한 경관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에 나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온 노총각이나 홀로 생활하는 장정들은 보이지만 미혼 여성은 찾기 어려웠다.

접근성이 문제가 되는 마을은 이미 폐촌화되는 추세이고 살고 있던 조선족 원주민들은 연지(延吉), 허룡(和龍) 등 중심도시로 이주하거나, 지역내에서 생활환경이 좀더 편리한 중심촌으로 이주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조선족과는 대조적으로 이출한 조선족농민들의 빈 집에 세를 들거나 규제를 피해 아예 구매하여 이사를 들어오는 한족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대부분은 아이를 2명씩 낳고 부모형제 일가족 5~6명씩 모여서 함께 생활하면서 조선족 농민들의 토지를 임대하여 규모농업을 하고 있다(사진 3).

〈표 5〉는 崇善鎮과 和龍市 지난 20년간 행정촌 및 촌민소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인구의 절대적 감소는 조선족 농촌마을의 영세화와 규모 축소를 초래하였고 촌락의 통폐합으로 이어져 원래의 촌이 촌민소조로 하향조절되고 여러 개의 촌민소조가 하나의 행정촌으로 통폐합되고 있는 추세이다. 崇善鎮과 和龍市의 행정촌의 수는 각각 1990년의 11개, 159개이던 것이 2010년 현재 4개, 76개로 뚜렷하게 줄었고 이러한 행정촌의 통폐합은 조선족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진행될 추세임을 책임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결과 崇善鎮처럼 조선족 촌민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조선족 마을에서 조선족 남성간부들이 鎮·村의 행정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현재 조사지역에서는 조선족 남성과 한족 남성들 사이에 촌간부의 행정 권력을 두고 암투를 벌이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인재유실로

인한 젊고 능력있는 조선족 남성 중견간부 양성이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다.

(2) 민속풍토의 변화

위의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崇善鎮은 연변지역에서 조선족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2010년 현재 조선족인구비율이 64.5%(표 2)로 나타나, 연변지역 전체의 그것에 비해(32.4%) 2배나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조선족인구의 감소는 순수하게 조선족으로 형성된 조선족마을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렇게 떠나고 난 빈 공간은 한족에 의해 채워짐에 따라 한족과 조선족이 상이한 비율로 혼주하는 민족구성의 변화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조선족마을의 민속풍토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마을의 활동시설 및 공동모임은 인구의 노령화 및 민족구성의 변화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崇善鎮 조선족 농촌마을에서 현재 행하고 있는 문화 오락모임 참여 여부 질문에 대하여 활동실에 모여 카드 또 마장(麻將)게임을 한다는 응답자가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외활동이 14.6%, 나들이 10.9%, 독서 및 인터넷 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에서 우리말TV 및 라디오를 주로 시청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1.7%에 달하여 오락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문화 오락모임을 조직 및 전개할 수 있는 협회나 시설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노인협회와 문구장과 같은 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마을은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인협회만 존재하는 마을이 12.6%, 문구장등 시설만 갖추고 있는 마을이 3.9%로 나타났으며, 폐교를 재활용한 소형 운동장만 있는 마을이 19.7%로 나타났다. 문화 오락모임을 갖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표 5. 崇善鎮과 和龍市 20년간 행정촌 및 촌민소조 변화

(단위: 개)

	崇善鎮		和龍市	
	행정촌	촌민소조	행정촌	마을/촌민소조
1990년	11	16	159	421
2000년	10	6	157	420
2010년	4	15	76	331

자료: 和龍市志(1988~2000); 和龍政務指南(2010珍藏版)

‘조선족 인구가 감소하여 민족특색이 사라졌다’가 7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젊은 남녀 비율의 실조로 적극성이 낮다’가 14.6%로 버금으로 나타났으며, ‘조선족 비율이 낮아 민족문화 오락모임을 갖기 어렵다’가 5.5%로 나타났다. 조선족전통 명절 문화 오락모임의 전개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77.3%의 마을이 모임을 갖지 않는다고 답했고 16.4%의 마을이 1년 1회정도 전체 촌민의 참여하는 운동대회를 소집한다고 답했고 3.9%의 마을이 해마다 단오명절, 8.15노인절, 9.3자치주정부 기념절 등 민속절을 맞아 모임을 갖는다고 답했다.

총적으로 민족오락모임의 색채는 많이 퇴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촌간부 및 촌민들과의 심층면담과정에서 심히 느낄 수 있었다.

### (3) 의식형태의 변화

崇善鎮 농촌지역 조선족 의식 형태 변화에 대하여 혼인의식, 생육관념, 노인부양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우선, 혼인 의식의 변화에 대하여 ‘조선족과 결혼 해야한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45%, ‘조선족 또는 한족, 결혼이민 모두 가능하다’가 17%, ‘조선족 또는 한족과 결혼 가능하다’와 ‘한족과의 결혼을 선호한다’가 13%, ‘조선족 혹은 결혼이민을 선호한다’가 8%, ‘결혼이민을 선호한다’가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혁개방 이전의 조선족 혼인 의식은 민족적으로 볼 때 전적으로 내혼(內婚)의 형태를 나타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족을 비롯한 타민족과의 혼인은 거의 불가능하였던 과거의 혼인 의식이 변화되었음을 나타낸다.

다음, 생육 관념 변화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수의 조선족 여성들은 아이를 하나만 낳으려고 한다. 이는 과거 ‘시댁의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조선족 여성의 전통 관념이 사라졌고 전통적인 ‘남아선호’, ‘多子多福’ 의식이 희박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의식변화는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는 조선족 여성이 늘어날 경우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많은 여성들은 더이상 자녀를 통해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자아실현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첫 자녀가 여아이면 둘째를 반드시 낳아야한다는 전통관념에서 벗

어나, 소수민족에 한해서는 2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부의 계획생육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 자녀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노인부양 의식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통적으로 장자가 부모를 부양하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 또는 부모 가까이 있는 자녀가 부양하며, 여러 자녀들이 일정기간 바뀌가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이번조사에서 나타나 그 형식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연변지역은 한국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생활 리듬이 빨라졌고 주택조건이 개선되면서 가족규모는 날로 소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사이의 세대차이로 말미암아 자녀와 부모가 따로 생활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주하는 경우도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부양 의식은 가족 내 노인부양으로부터 사회노인부양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료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선족의 해외노무, 연해도시지역으로의 진출, 조선족 여성의 혼인이주, 출산률의 급격한 저하와 거주지역의 확산으로 인한 학령아동의 감소는 많은 조선족학교들이 학생수의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조선족학교의 통폐합을 초래하였는데, 문제는 이러한 통폐합이 규모뿐 아니라 진행 속도에서 중국 내 기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변지역의 민족교육이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논의 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학령아동인구의 규모가 작은 농촌지역에서 심하게 나타났으며 점차 도시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조사 결과 和龍市 조선족학교 수가 1980년대의 148개로부터 2002년의 74개, 2010년 현재의 14개로 줄어 30년간 134개(90.5%)의 학교들이 통폐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崇善鎮인 경우 鎮소재지인 구청촌(古城村)에만 초등학교와 어린이 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집도 한족어린이와 조선족어린이가 함께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마을의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의 문제점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상텐촌(上天村)의 김씨댁 8세 여자어린이는 南坪鎮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어린이집을 다녀보지 못했다고 전했다(심충면담 내용, 2011:7.16).

조선족 농촌사회의 교육환경이 이렇게 열악하게 됨으로 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 도시로 떠나는 행렬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다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농촌 인구로 하여금 농촌을 떠나게 하는 가운데 민족교육기반이 와해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의료환경의 경우 崇善鎮 전지역에 1개 의무실이 鎮소재지인 고청촌(古城村)에 위치해 있다. 의무실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증개축되었고 진료실과 약방으로 되어 있으며 의사와 간호가 각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 촌들은 의료시설이 없어 마을에 사시는 노인들은 작은 병은 참고 견디거나 그냥 알아서 약을 찾아드신다고 하였다(심충면담 내용, 2011.7.16). 예전에는 정부에서 맨발의사(赤脚医生)를 파견하여 마을을 다니면서 진료를 하였으나 현재는 의사면허가 없어서 환자를 볼 수 없게 되었고 도시의 의원들은 농촌으로의 의료과건 근무를 꺼려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의료환경은 극히 열악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심충면담에서도 나타듯이, '병환에 들 경우' '홀로 참고 견딘다', '자녀나 친척이 간호해준다', '촌간부나 이웃에 위탁한다', '부인 혹은 남편이 간호해준다' 등이 각각 35%, 30%, 20%, 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마을의 노인들은 큰 병에 걸리면 80리 거리에 떨어진 和龍市 市級 병원을 찾게 되므로 환자들의 치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5.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중국 연변 농촌지역의 조선족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의 적응양상을 농업경영방식과 관련지어 지역의 내·외적인 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중요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지역인 和龍市 崇善鎮은 1990년~2010년 사이 조선족 농가구 및 농가인구 모두 28.6%가 감소하였으며 조선족의 평균출생 자녀수는 1990년의 1.84명에서 2010년에는 0.56명에 불과하여 한족의 그것에(1.08명) 비해 뚜렷하게 작다. 인구 자연증가율은 1990년의 5.09%에서 2010년

에는 -10.6%로 절대인구 감소추세로 급변하였고 현재도 계속 높은 비율로 진행되고 있다. 농가성별 연령별 구조에서는 60세 이상의 노년 인구층이 1990년 5.9%에서 2010년 16.8%로 약 3배 증가되어 고령화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대규모 국제혼인이동으로 인하여 혼인적령 인구의 남녀균형이 심각하게 왜곡된 반면, 60세 이상의 노년 인구층의 성비는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농업노동력의 고령화와 노부녀화가 진행되고 있다.

조선족농촌지역의 절대인구 감소 요인은 중국 정부의 계획생육정책의 실행, 시장 경제와 더불어 생육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 육아 부담의 증가와 주로 농촌공동체 생산 생활방식의 파괴로부터 비롯된 이촌향도, 조선족농촌지역 남녀성별 비례균형의 상실, 국내연해지역으로의 진출, 한국 일본 등 국외로의 노동력 이출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조선족농촌지역의 절대인구감소가 선택적 이동과 출산저하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심각성을 더하게 된다. 즉 농촌지역이 잃는 인구는 사회경제적 활동이 가장 적극적, 능동적인 연령층이고 발전을 주도할 교육받은 인구집단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족보다 외부로 인구유출이 많은 조선족 집거구는 흡수 통합당할 대상이 되기 쉽다. 한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집거구로 흡수 통합당할 경우 촌민위원회 구성을 직선으로 하기 때문에 민족을 대표하는 젊고 유능한 간부를 뽑을 수 없다. 이 경우 민족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고 집거구가 몰락할 수 있다.

둘째, 조선족농촌지역에 있어서의 감소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농업경영상의 변화로는 타지역 한족 농민들이 조선족 농민들의 토지 임대를 통한 개인임대차 경작, 개별농가의 기계화, 겸업화를 통한 조선족노동력 확보 등이 있는데, 이러한 조선족노동력 보완 방안 중에서도 특히, 한족을 통한 임대차경작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결과 조선족인구 비율이 지속적인 감소를 초래하고 있을 뿐더러 한족농민들이 농업생산 규모를 확대하면서 농업의 한족화 현상과 한족 농민들의 경제력이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작물구성은 한족을 통한 개인임대차경작

의 확산으로 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전통적 수전농업 체계에서 벼재배의 포기가 두드러지고 대신 水田 단작영농체제로 특화되어 가는 경향이며, 노동력이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한 상업적 작물이 인기가 높다. 파격적인 정책의 지원이 없는 한 조선족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 조선족노동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새로운 농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결국 조선족농촌마을의 소실이 초래되고 있다.

셋째, 인구가출에 따른 농촌지역의 부정적 방향으로의 변화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생활환경의 악화 및 사회문화적 변화이다. 조사지역의 신농촌건설 시범촌을 제외한 조선족농촌마을의 가옥은 건축연대가 오래되어 적막하고 노후한 경관을 가지고 있고 폐가가 많으며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도시에 나가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온 총각 청년들은 보이지만 미혼 또는 혼인적령기 여성은 찾기 어렵다. 이에 반해 조선족 이주자들의 빈 집에 세를 들거나 규제를 피해 아예 구매하여 이사를 들어오는 한족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교통이 불편한 마을은 이미 폐촌화되는 추세이고 살고 있던 주민들은 도시로 이주하거나, 지역 내에서 생활환경이 좀더 편리한 중심촌으로 이주하는 경향도 있다.

인구의 절대적 감소는 농촌마을의 영세화와 규모 축소를 초래하였고 촌락의 통폐합으로 이어져 원래의 촌이 촌민소조로 하향조절되고 여러 개의 촌민소조가 하나의 행정촌으로 통폐합되었다. 공동시설 및 공동모임도 인구의 노령화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촌락 뿐 아니라 민족학교도 한족학교와 통합되었거나 폐교되었으며 2003까지도 운영하던 유아원도 조선족농촌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조선족 촌민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조선족 마을에서 조선족 남성간부들이 행정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현재 조사지역에서는 조선족 남성과 한족 남성들 사이에 촌간부의 행정 권력을 두고 암투를 벌이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사회의 “한국바람”으로 촌의 조선족 남성간부들도 국제이주 유혹을 받고 있는데, 이들의 부인들 대부분이 이미

“한국이주취업”을 하고 있었고 전임 촌 간부들의 대다수가 국제이주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적으로 파격적인 정책의 지원이 없는 한 조선족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 조선족노동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새로운 농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결국 더 많은 조선족농촌마을의 소실이 초래될 것이다.

## 주

- 1) ‘民工潮’는 중국에서 개혁개방 정책 이후 나타난 사회현상으로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진출하는 풍조인데 주로 봄에 가난한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무작정 상경, 대도시로 이동하는 거대한 흐름을 일컫는다. 중국은 매년 봄이면民工조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농민 8억여 명 중 1억 5천만 명 이상이 실업 상태이며 특히 四川省 등 내륙지역은 절대 빈곤층이다. 이들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무작정 도시로 유입하여 上海, 杭州, 南京을 잇는 이른바 ‘황금의 삼각지대’에 1천만 명, 수도 베이징에 5백만 명이 몰려 있으며 廣東省 내의 경제특구에는 6명 중 1명이 이들 외지인으로 추산되고 있다.
- 2) 중국의 호구제도(戶口制度)는 한국의 호적제도와 유사하지만, 단순한 인구등록제도나 인구통계제도를 넘어 제도의 개념을 초월한 중국 사회의 기본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제도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인구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중국만의 특유한 호구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기가 힘들다. 중국에서의 호구는 한 사람의 특정 신분과 특정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모든 국민들은 명확히 농민 즉 농업인구와 비농업인구 즉 도시인구라는 서로 다른 신분을 가진 사회계층으로 분리되고 그들의 후대들도 그러한 신분을 계승하게 된다. 호구에는 동시에 특정적인 대도시, 중소도시 혹은 농촌에 거주하는 권리가 반영되어 있으며 정부의 허가가 없이는 변동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지역 간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통제하는 이러한 호구제도의 실시로 지역 간에 거주지를 옮기는 일이 공식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인구이동의 대부분은 제도권 바깥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이동 현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통계에 대해 진실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을뿐더러 사실 그대로 파악 하는 일이 쉽지 않다.(한홍석, 1997; 이강원, 2001; 이병기, 2006)
- 3)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의 이동규모를 정확히 파악할만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확보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최근 공개발표된 학술저널에 기초한 것이며 그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활

동하고 있는 단체(<http://www.hljxinwen.cn>), 언론(‘흑룡강 신문’, ‘재외동포신문’ 등), 연구자들에 의하여 추정된 수치와 연구지역에 대한 상세한 심층면접 조사, 일부 기관(한국 행정자치부 등)들이 산발적으로 발표하는 수치에 의존하였다.

- 4) 일반적으로 인구센서스는 한 나라나 특정 지역의 인구규모, 구조, 분포 및 성장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중국의 센서스자료를 활용하여 조선족에 관한 사회인구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우선 센서스 보고서에서 조선족에 관련되는 자료는 민족 자료의 일부를 구성할 뿐이기 때문에, 조선족의 인구행태와 그 변화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세부 자료를 얻을 수 없다(김두섭, 2003, p.140). 따라서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인구의 최근 변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를 기초로 농촌지역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은 1990년에서 2010년간의 연변지역의 시·현단위 인구감소율을 고려하여 사례연구지역을 추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화룡시 승선진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실제 조사를 행하면서 주민등록이나 인구 조사의 자료에는 외지로 이출한 가족구성원을 여전히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실제 거주인구와 통계수치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물론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조선족 마을들이 통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중국의 전체 조선족 농촌지역을 대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연구가 실령 전체지역의 모든 문제를 제시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문제의 1차적인 포착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가설의 수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5) 연변지역의 인구증가율을 주도한 민족은 내륙지역에서 연변지역으로 이입한 한족이다. 즉 조선족 인구는 연변지역 이외로의 이출이 많은 반면, 한족 인구는 연변지역 내로의 이주가 증가된 것이다. 특히 조선족 농촌 인구는 감소되고 그 감소된 부분은 한족 농촌 인구로 채워지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변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둔화시(敦化市)와 훈춘시(琿春市)의 지난 10년간(2000~2010년) 증가된 인구수는 각각 1,861명, 13,466명인데 증가된 민족은 한족이다(延邊統計年鑑, 2011, p.52).
- 6) 2012년4월 28일 발표되기 시작한 중국의 제6차 인구센서스에서 중국의 총인구는 13억 3,900만 여명으로, 2000년 이래 1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0.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10년간인 1990~2000년의 증가율 1.11%에 비해 0.54% 낮은 수치이다. 이번 제6차 인구센서스에서 드러난 중국 인구구조의 추세는 인구 증가세 둔화와 그 주요원인으로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가속화, 급속한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요약된다.
- 7) 중국 소수민족자치지역에서 소수민족 인구가 30% 이하로 내려가면 민족지역 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이 점차 상실하게 되어 집거구의 해체 위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지금까지 조선족의 집거지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변지역이 조선족자치주 행사권을 상실할 경우 조선족이 한국으로 동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며, 조선족 정치 경제의 중심인 연변지역이 이런 상황이라면 산거지역 집거구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김재기, 2002).

- 8) 심층면담중 和龍市 인구및 계획생육국 박일선국장은 “농촌지역의 청장년노동력과 가임 여성인구의 대량 유실이 조선족인구마이너스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더러 지역경제용량이 엄중하게 위축된 상황에서 허룡시(和龍市)는 지리적으로 연변의 제일 남단지역에 위치해 있다보니 물자운송비 단가가 높은 반면 소비군체 또한 적고 인구당 수입도 낮아 지역 경제 총량을 늘이는데 엄청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조선족농촌의 현실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했다.
- 9) 이러한 현상은 연변지역 전체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 첸하이란(千海蘭) 연변조선족자치주 부주장은 연변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현상을 “1992년 중한수교 이후 청·장년층을 위주하던 조선족 인구가 대량으로 한국을 비롯한 해외로 노무를 떠나거나 중국 내 발달한 연해지역 대도시의 한국기업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결과 현지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이라고”하면서, “현재 연변지역 조선족의 둘째 자녀 출생 수는 연간 900명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인만,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 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고향에 돌아와도 종사할 일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http://hljxinwen.dbw.cn>, 2013.1.8)
- 10) 조선족 이동은 크게 농촌에서 중국과 한국의 주요 도시로의 대규모 노동이동과 조선족 여성의 혼인 이주로 볼 수 있다. ‘한국바람’은 조선족 인구유동을 가속화한 최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1980년대 말 한국입국이 제한적이거나 확대되어 조선족의 외지유출현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면서 친척방문에만 국한되었던 한국방문이 노무수출을 통해서도 가능해지면서 조선족사회의 인구유출현상은 부분적 특수적 현상에서 전면적 일반적 성격으로 변모하게 되었다(강재석, p.203). 한국남성과의 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할 수 있는 혼인이동은 조선족 여성이 노무수출 외 한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우로 되었다.

## 문헌

- 권태환 편저, 2005, 중국조선족사회의 변화: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 권태환, 2004, 중국 조선족 대이동과 공동체의 변화, 한국인구학, 27(2), 61-89.
- 김두섭, 2013, 연변 조선족인구의 최근 변화: 1990년, 2000년 및 2010년 중국 인구센서스 자료의 분석, 中蘇研究, 36(4), 121-149.

- 김두섭, 2003, 연변 조선족사회의 최근 변화: 사회 인구학적 접근, 한국인구학, 26(2), 111-145.
- 김병호·류춘옥 편저, 2007, 중국 조선족 인구문제와 그 대책, 민족출판사, 북경.
- 김재기, 2002, 중국 조선족 집거구 해체 위기와 대응, 재외한인연구, 제12호, 2-26.
- 박광성, 2007, 중국조선족의 초국적 인구이동과 경제생활의 변화, 在外韓人研究, 제18권, 2-26.
- 박금해, 2000, 중국조선족교육 그 현황과 과제,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3(1), 2-17.
- 오홍철, 1980, 湖南地方의 人口急減 村落, 地理學研究, 제5권, 83-95.
- 유병호, 2000, 중국 조선족의 인구위기에 대한 연구, 在外韓人研究, 9(1), 2-18.
- 李康源·魯奇, 2001, 산업화된 농민국가의 출현과정, 地理學研究, 35(3), 197-217.
- 이길남, 2010, 연변조선족 인구감소와 민족교육의 위축 위기,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제12호, 157-171.
- 李炳璣, 2006, 연변 조선족 농촌사회의 인구이동 실태와 그 시사점, 농업경영 정책연구, 33(3), 749-776.
- 이재덕, 1989, 농촌인구 이출과 농촌지역의 변화-경험적 연구사례의 검토, 서원대학논문집, 1-19.
- 한홍식, 1997, 중국의 戶口制度와 지방주의, 국제지역연구, 6(2), 165-187.
- 金強一, 2004, 朝鮮族社會人口流動和集居地空洞化問題的對策研究, 東疆學刊, 第三期, 80-85.
- 梁玉今·蔡洙一, 2003, 延邊朝鮮族人口負增長所引發的主要問題及其對策,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二期, 41-44.
- 李春敏·薛宝生, 2000, 論朝鮮族人口的可持續發展, 人口學刊, 第四期, 39-42.
- 朴美蘭, 2010, 建國以來延邊朝鮮族人口演變的特點,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四期, 113-117.
- 朴美蘭, 2012, 全球化時代延邊朝鮮族人口負增長的實質及其特點, 東疆學刊, 第一期, 55-63.
- 王鑫, 2009, 延邊地區朝鮮族人口遷移現狀及其影響因素分析,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 鄭信哲, 2006, 朝鮮族人口自然增長率下降對發展的影響, 黑龍江民族叢刊, 第一期, 35-39.
- 延邊統計局, 2011, 延邊六十年統計年鑒(1949~2010), 中國統計出版社, 北京.
- 和龍市統計局, 2011, 和龍市統計年鑒(1949~2010), 中國統計出版社, 北京.
- 和龍市人民政府編, 2010, 百年和龍(1910~2010), 延邊新華印刷有限公司.
- 和龍市地方志編纂委員會編, 2008, 和龍市志(1988~2010), 吉林人民出版社.
- 和龍市人口和計劃生育局, 1949~2010 인구통계 내부자료.
- 延邊朝鮮族自治州計劃生育委員會, 1990, 延邊人口統計資料彙編, 延邊大學出版社.
- 延邊朝鮮族自治州人口普查辦公室(편), 1992, 延邊朝鮮族自治州第四次人口普查資料匯編, 延邊朝鮮族自治州人口普查辦公室 延吉
- 延邊朝鮮族自治州人口普查辦公室(편), 2002, 延邊朝鮮族自治州第五次人口普查資料匯編, 延邊朝鮮族自治州人口普查辦公室, 延吉.
- 延邊朝鮮族自治州人口普查辦公室(편), 2013, 延邊朝鮮族自治州第六次人口普查資料匯編, 延邊朝鮮族自治州人口普查辦公室, 延吉.
- 길림신문 / 2011 / 차이나코리아 / 114 / <http://www.cnkr114.com/bbs>
- 흑룡강신문 / <http://www.hljxinwen.cn>
- 재외동포신문/제13회 재외동포포럼/ 중국 조선족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 / <http://blog.daum.net/행정안전부/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 <http://www.mospa.go.kr/gpms/srch/search.jsp>
-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10年第六次全國人口普查主要數據公報[1]/ 2011.4.28. / <http://www.stats.gov.cn/tjgb/rkpcgb/qgrkpcgb/>

(접수: 2013.08.05, 수정: 2013.11.15, 채택: 2013.11.23)